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의 여유자원과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장동현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박사과정)**

연주한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

김천규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여유자원(slack resource)과 기업의 성장전략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향후 벤처기업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및 기술 발전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하였다. 이런 벤처기업의 위상에 수반되는 것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 및 환경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CSR)이다.

이제 CSR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CSR 관련 연구는 주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벤처기업이 CSR 활동 참여라는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부의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다중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로 벤처기업의 활용가능(available) 여유자원인 영업이익과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인 정부의 정책지원금이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대기업과의 사업관계 및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도 CSR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벤처기업에서 대표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CSR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 영향요인에 관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학술적 의미가 있으며 벤처기업의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대기업들과 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주제어: 벤처기업, 기업의 사회적책임, 여유자원, 성장전략, 영향요인

1. 서론

2019년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벤처·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라고 진단하며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술창업과 벤처투자가 급증하며 창조형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IMF 외환위기 사태 극복에 큰 기여를 했던 '제1벤처붐'을(이민화·최선, 2015) 다시 되살려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해외에서는 벤처기업을 반복과 확대가 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수행하면서 경제적 부, 고용, 산업, 혁신 그리고 성장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생조직(Shepherd et al., 2021; Hemmert et al., 2022)으로 정의하며, 벤처투자자(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또는 창업기업(start-up), 소기업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Brush & Vanderwerf,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부는 벤처기업을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춘우(2005)는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극복하고 창조적 파괴를 지향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 차별화된 기술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신생기업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투자유치, 연구개발 전담조직 보유, 연구개발비 지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증된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금융, 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35,123개 기업의 총매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주저자,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박사과정, donghyun.jang1@gmail.com

*** 참여저자,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 juhanyeon@cnu.ac.kr

****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 chunkyuk@cnu.ac.kr

투고일: 2024-05-13 · 수정일: 2024-06-10 · 게재확정일: 2024-06-15

출액은 21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이며 약 81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3b).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서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성장해온 벤처기업에게 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Carroll(1991, 1999)은 기업의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발적인 책임을 포함한다고 했다. 기업은 사회적책임의 실천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기업이미지 향상, 경제적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윤상용·이형탁, 2018). 이에 따라 CSR은 많은 기업들에게 자선적인 기부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의 선택이나 권장 사항이 아닌 생존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요소인 동시에 사회적 요구로 인식되고 있다(고성천·박래수, 2011; 정용기, 2012; 이채규·양동규, 2018b). 특히 사업의 규모가 크고 주주, 정부, 지역사회, 고객,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대기업과 상장기업들은 CSR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도 CSR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대기업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 벤처나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대기업의 공급망과 정부 공공 조달 참여,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들인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사회적책임 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확대에 대한 대응, 기업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 실질적인 기업성과의 개선을 위한 필요에 의해 CSR 실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신진교·조정일, 2011; 조금제, 2018).

국내 CSR 관련 연구는 2005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나(이은지·조정주, 2022)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연구자가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검색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경영학 분야 CSR 관련 국내연구는 총 836편인데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논문은 23건, 벤처기업은 5건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의 구성, CSR 활동 영역과 수준을 결정하는 기업지배구조, 이용 가능한 자원의 규모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이론을 연구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연구 결과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황호찬, 2007; 광배성·이재혁, 2019).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SW 개발과 에너지 등 첨단 제조·서비스 업종이 전체 기업의 50.4%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대비 6배의 연구개발 비율, 96.8%의 높은 정규직 비율 등 일반 중소기업과도 분명히 다른 특성을 보여 벤처기업을 별도의 대상으로 하는 CSR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벤처기업의 CSR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SR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채규·양동우, 2018a, 2018b, 천동필·우정원, 2020)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으며 CSR이 조직몰입 및 조직신

뢰,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인성·강인원, 2019), 다국적 벤처기업의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CSR 성과 창출(오한모·안상봉, 2019) 등이 있다. 수익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만큼 벤처기업의 CSR 관련 연구들도 CSR 활동과 기업성과의 연관성을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벤처기업이 CSR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나 CSR 활동을 결정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업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여유자원(slack resource)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전략에 집중하여 국내 벤처기업들의 CSR 활동의 결정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중소기업부가 실시한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벤처기업의 CSR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둘째, 벤처기업 CSR 활동의 발전적 확대 방안 관련 시사점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으며, 셋째 향후 벤처기업의 CSR 관련 연구의 기본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 여유자원,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벤처기업 특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뒤 실증연구를 위한 가설을 도출하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의 설계와 자료에 대해서 논의하며, 제4장에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뒤 마지막 제5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II.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

2.1. 벤처기업과 CSR

2.1.1. 벤처기업 CSR 현황

최근 CSR은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보여주거나 법제화에 따라 강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적 활동이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자 전략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장지인·최현섭, 2010; 고성천·박래수, 2011; 신진교·조정일, 2011; 조금제, 2018; 김나미 외 2021, Bode & Singh, 2018).

또한,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ESG 개념이 기업의 환경에 대한 책임과 주주, 정부, 협력업체, 임직원,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발전적, 생산적 관계를 증시하는 ESG 경영으로 확대되어 향후 CSR과 함께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진섭·우시진, 2021).

2023년 국내 시가총액 기준 200대 기업의 83%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는 2022년 77%보다 증가된 결과이다¹⁾. 그러나 중소기업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CSR 경영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32.5%, 경영활동에 도입한 중소기업은 20.2% 수준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3a).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소기업부의 벤처

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도 벤처기업의 53.7%만이 CSR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CSR 활동의 수준 관련 차이는 보유자산의 수준이나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이 갖는 ‘신생의 어려움(Liability of Newness)’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Zuo et al., 2022). 신생의 한계 또는 불리함으로도 사용되는 이 개념은 Stinchcombe(1965)가 제시한 것으로서 신생 조직들이 내부 프로세스나 절차의 개발 미흡과 외부 행위자들과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더 큰 실패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Zuo et al., 2022). Shepherd et al.(2021)은 신생벤처가 갖는 신생의 어려움은 벤처기업이 시장, 생산 기술, 경영 측면에서 겪는 새로움의 수준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신중경·하규수(2013)는 국내 창업기업들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면서 생산, 시장, 경영 관련 신생의 어려움과 함께 제품 개발 및 연구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실패 요인으로 설명했다. Wang & Bansal(2012)은 신생의 어려움이 신생벤처의 CSR 관련 활동들의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키고 긍정적 영향은 약화시킬 수 있어 신생벤처가 CSR 활동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우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Zuo et al.(2022)은 중국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SR 활동의 수행이 신생의 어려움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큰 비용지출 없이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2.1.2. CSR과 기업성과

벤처 및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의 CSR 활동 관련 관심사는 CSR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CSR 활동과 기업성과 및 가치의 영향과 관련하여 해외 연구들은 상반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연구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성천·박래수, 201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CSR 활동과 기업성과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나도성 외(2011)는 Carroll의 사회적 책임 모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책임이 중소기업의 CSR 활동 중에서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급망 안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B2B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서주환(2016)의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의 CSR 활동이 매출, 시장점유율, 고용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성과에 전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신진교·조정일(2011)의 연구에서는 CSR 활동이 인력관리, 마케팅, 생산, 기술혁신 등 경영활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매출이나 수익성과 같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CSR과 기업성과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천

동필·우청원(2020)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중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등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CSR 활동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림·빅종서(2023)의 연구에서는 CSR 활동을 하는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활동하지 않는 기업보다 높아 국제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규·양동우(2018a)는 CSR 활동 중 재무적 책임이 벤처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윤리적 책임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2. 여유자원과 CSR

2.2.1. 여유자원과 유형

기업에게 자원은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여유자원(slack resource)은 기업이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George, 2005). 즉, 여유자원은 기업이 확보했지만 필요한 지출에 투입되지 않은 자원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Dimick & Murray, 1978), 기업이 위협에 대처하거나 기회를 활용하고자 할 때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한다(Bourgeois, 1981).

Bourgeois & Singh(1983)은 여유자원을 과잉 유동성과 같이 아직 기업에서 사용되지 않은 활용가능(available) 여유자원, 초과된 부대비용처럼 이미 사용되었지만, 기업의 시스템에 흡수되어 있는 회수가능(recoverable) 여유자원, 부채나 외부조달 자기자본과 같이 주변으로부터 별도의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인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Daniel et al.(2004)은 여유자원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Bourgeois & Singh(1983)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여유자원이 모두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특히 잠재적 여유자원과 활용가능 여유자원이 회수가능 여유자원보다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Chen et al.(2023)은 조직의 잠재적 여유자원에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자원을 포함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기업들의 혁신과 해외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수옥(2010)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과 같이 민간 부문 벤처투자(venture capital)와 회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벤처생태계에서 정부의 정책지원금이 벤처 및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공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국내 벤처기업에게도 정부의 지원이 잠재적 여유자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 ESG행복경제연구소 보도자료 (2024.01.08.)

2.2.2. 여유자원과 CSR

기업 경쟁우위의 원천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의 측면에서 기업의 여유자원은 CSR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최준혁 외, 2017).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은 잠재적으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유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의 관계, 종업원과의 관계, 환경 등에 관련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자원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Surroca et al., 2010; Waddock & Graves, 1997). Waddock & Graves(1997)는 우수한 재무적 성과로부터 창출되는 여유자원이 CSR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수한 재무적 성과는 CSR의 예측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여유자원과 CSR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정용기(2012)는 CSR 활동을 촉진하는 기업들의 특성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경영자의 재량적 비용지출이 많아 CSR 활동의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이걸주 외(2017)는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은 더 많은 여유자원을 활용하여 CSR에 더 적극적이며, 최준혁 외(2017)는 여유자원이 CSR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기업의 수명주기를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쇠퇴기로 구분하는 경우 여유자원이 가장 많이 확보된 성숙기에 CSR 활동을 증진하는 효과가 집중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국내의 경우 경제정의연구소에서 측정한 경제정의지수(KEJI)와 같이 공개적으로 기업의 CSR 활동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시된 기업 재무성과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대기업 및 상장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 규모, 재무적 성과가 더 많은 여유자원을 창출하여 CSR 실행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41.0%는 CSR 경영의 도입과 실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예산 및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23b). 하지만 대기업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들도 여유자원은 CSR 활동의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Bourgeois & Singh(1983)의 연구에서와 같이 회수가능 여유자원보다 사업 활동에서 얻어지는 활용가능 여유자원과 외부 자금조달 및 정부지원을 통한 잠재적 여유자원의 보유 여부가 CSR 활동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벤처기업의 활용가능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벤처기업의 잠재적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벤처기업의 성장전략과 CSR

사업 관련 축적된 경험, 네트워크, 보유기술, 자산 등 보유 자원이 제한적인 벤처기업과 초기창업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박다인·박찬희, 2018). 최근 CSR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충실한 노력을 넘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인식되어가고 있음에 따라(장지인·최현섭, 2010; 고성천·박래수, 2011; 신진교·조정일, 2011; 조금제, 2018) 벤처기업도 CSR을 사업전략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CSR 활동의 경제적 수익 창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면 벤처기업은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Wang & Bansal, 2012; Wang, 2017).

신진교·조정일(2011)은 중소기업의 전략으로 CSR이 필요한 이유를 CSR 성과와 기업성과의 선순환에 기반한 지속성장의 실현,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공급사슬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제시하였다. 조금제(2018)는 CSR이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전략이며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CSR 활동을 통해 글로벌기업이 요구하는 CSR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성장전략으로서의 CSR 활동에 대해 글로벌 진출, 외부협력, 장기지향성의 차원에서 검토한다.

2.3.1 벤처기업의 글로벌 지향과 CSR

내수시장의 작은 규모, 과잉 생산, 소수의 대기업에 의한 독점적 시장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수익성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다(김중운, 2016; 김은혜·김장훈, 2020).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38.1%는 창업 당시 국내와 해외 모두를 목표시장으로 설정한 본 글로벌(Born Global)기업이며, 22.3%는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tig et al.(2016)은 기업의 국제화는 CSR 활동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국제화는 CSR 활동의 확대를 동반한다고 하였다. 최아름·구지현(2016)의 연구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국제화 수준이 높을수록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특히 환경과 소비자 보호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CSR 활동에 대해 이예림·박중서(2023)는 벤처기업의 CSR 실천이 국제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했으며, 김나미·김영미(2023)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CSR 활동을 실행하기 때문에 수출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CSR을 활발하게 수행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CSR을 중요한 전체적 관리 수단이며 전략적 투자로 간주하여 CSR 실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김익성, 2006).

가설 3: 벤처기업의 수출 등 글로벌 사업 수행은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외부협력과 CSR

벤처기업은 전략적 제휴, 공동연구, 공급망 참여 등의 외부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자원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정보 관련 접근성을 높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김향덕·이철규, 2018) 외부협력은 매우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김종운(2012)은 벤처기업의 외부 협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규모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벤처기업은 외국기업과의 협력이, 20인 이상의 벤처기업은 연구기관 및 대기업과의 협력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진교·조정일(2011)은 CSR경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이유로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의 CSR경영에 따른 공급망 내 협력사에 대해 CSR 실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박배성·이재혁(2019)은 국내 중소기업의 CSR연구동향 분석에서 중소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 및 운영 수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최근 크게 높아지면서(Rajeev et al., 2017)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의 협력사 CSR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나진성, 2022). 실제 신호창 외(2023)는 포스코와 협력사 간 동반성장 CSR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협력사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구성원 열의, 기업시민의식 등 무형자산 창출에도 기여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공급망 운영에 CSR 개념을 적용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면서 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벤처기업에게 CSR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업의 요소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 4: 벤처기업의 대기업과의 사업 진행과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는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4 장기성장전략과 CSR

장성희·마운주(2014)는 장기지향적(long-term orientation)인 기업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의사결정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CSR 활동에 투자하고 CSR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용기(2012)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CSR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지속성장성이 높아지는 관계를 확인하고 CSR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속성장성의 예측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단기적인 현안들이 더욱 시급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의 확인이 가능한 CSR 활동은 자원과 역량 투입의 결정에서 우선순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Carlisle &

Faulkner, 2004).

Wang(2017)은 CSR이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에게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 장기적 성장을 지향하는 벤처기업이 CSR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며, 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이 CSR의 경제적 성과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CSR의 경제적 수익 창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은 단기간 내 CSR의 효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Wang & Bansal, 2012; Wang, 2017). 이에 따라 기업의 향후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벤처기업은 CSR관련 비용을 글로벌 진출,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공급망 참여 등의 사업전략 실행을 위한 투자로 간주하고 CSR을 통한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할 것이다.

가설 5: 벤처기업의 장기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벤처기업의 특성과 CSR

2.4.1 벤처기업의 지배구조와 CSR

황호찬(2007)은 중소기업의 CSR을 논의할 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공식적인 네트워크보다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2022년 기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창업자 지분비율이 64.3% 수준이며, 조사대상 기업의 86.3%는 창업자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하며, 독점적인 의사결정자인 경우가 많다(Mazzarol & Reboud, 2020).

고성천·박래수(2011)는 기업의 소유자 등 대주주가 CSR을 기업의 유·무형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로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CSR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CSR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를 높은 CSR성적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김창수(2009)의 연구에서도 대규모 지분 보유자의 지분과 최대 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의 CSR활동이 기업가치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육근효·최미화(2011)와 정용기(2012)의 상장기업 대상 연구에서는 대주주지분율이 CSR성과와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 외국인 지분율은 긍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 결과를 우리나라 대주주들의 CSR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경향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대주주지분율과 CSR 활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긍정적, 부정적 관계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Bamea & Rubin(2010), Harjoto & Jo(2011), Oh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의 CSR 활동이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일관된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기업에서는 경영자들이 CSR 활동을 자신들의 개인적 효용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대리

인(Agenc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이런 지배구조가 소극적인 CSR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일치가 벤처기업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소유와 경영 일치는 CSR 활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설 6: 벤처기업의 대표자 보유지분율은 CSR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2 벤처기업 규모와 CSR

기업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와 CSR 활동 수준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는 두 요소 간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장지인, 2011; 정용기, 2012; 오덕교 외, 2013; 박혜진 외, 2022). 반면 고성찬·박래수(2011)의 CSR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CSR이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효과, 학습능력에 대한 근거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와 CSR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 배치되는 결과이다.

나영·홍석훈(2011)은 대규모 상장기업과 소규모 상장기업의 CSR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며 기업 규모가 CSR활동의 가치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벤처기업간 자산규모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규모가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설 7: 벤처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표본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의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42003호)를 사용하였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벤처확인기업의 일반현황과 경영성과 등을 조사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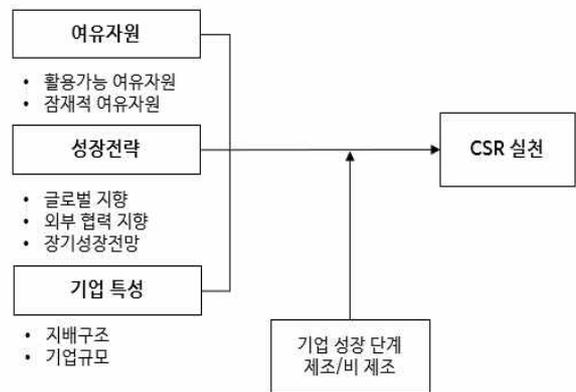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법인형태의 벤처확인기업 32,224개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10대 업종, 8개 매출 규모로 표본을 멉등배분하여 획득된 3,000개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과 동일 업종, 동일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고 조사내용 중 특정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응답자를 재접촉하여 무응답을 보정하였다고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응답 결과의 신뢰도가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벤처기업의 여유자원을 측정하기 위해 자산수익률, 영업이익이익률,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데이터의 누락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기업들과 극단적 이상치(outlier)를 제외하고 총 2,912개 기업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연구의 모형 및 방법

선행연구와 도출된 가설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벤처기업의 여유자원, 성장전략, 기업특성이 CSR 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선행연구 고찰의 결과를 통해 예상하였으며 기업 간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와 제조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CSR 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종속변수가 사회적 책임(CSR) 실천 여부(실천: 1, 실천하지 않음: 0)로 구분되는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임에 따라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을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분석 모형에서 1.01에서 3.03 사이의 값을 나타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VIF 10보다 충분히 작아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5).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도출한 실증적으로 검증할 연구가설은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연구가설

가설		분류
1	벤처기업의 활용가능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유 자원
2	벤처기업의 잠재적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벤처기업의 수출 등 글로벌 사업 수행은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장 전략
4	벤처기업의 대기업과의 사업 진행과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는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벤처기업의 장기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벤처기업의 대표자 보유지분율은 CSR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 특성
7	벤처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CSR 실천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벤처기업의 여유자원, 성장전략, 기업특성 측면에서 CSR 실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표 2>.

<표 2> 변수와 측정방법

구분	변수	측정	관련 문헌	
종속 변수	CSR 실천	CSR실천여부		
독립 변수	여유 자원	활용 가능	ROA (자산수익률: 순이익/자산) OP ROA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자산)	Waddock & Graves (1997), 최준혁 외(2017)
		잠재적	부채비율 (부채/자산) 정부 정책지원 수혜금액(LN)	Chen et al.(2023), 김신영 외(2024)
	성장 전략	장기성장전망	장기성장전망(1~5점)	Wang(2017)
		글로벌 지향	해외수출진행여부	이예림·박종서(2023) 김나미·김영미(2023)
		외부 협력	대기업거래 여부 대기업 협력 기대 여부	곽배성·이재혁(2019)
	기업 특성	기업 규모	자산총액(LN)	고성천·박래수(2011)
		경영자 재량권	대표자 보유지분율(%)	최희원·문철우(2012) 정용기(2012)
통제 변수	성장단계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동필·우청원(2020)	
	업종	제조, 비제조	오자영·정성광(2023)	

벤처기업의 여유자원은 Bourgeois & Singh(1983)의 분류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활용가능(available) 여유자원은 선행연구(Waddock & Graves, 1997; 최준혁, 2017)에 기반하여 자산을 사용하여 얻은 순이익의 효율성을 나타내며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 및 자원 배분에 유용한 지표인 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과 자산 대비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자산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ROA)로 측정하였다. 외부로부터 별도의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인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은 부채비율(부채/총자산)과 벤처기업이 받은 정책금융기관의 융자와 보증,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R&D 자금, 창업지원 자금, 수출지원 자금 등의 금액을 합산한 값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측정하였다.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중 장기 성장전망은 기업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향후 사업의 전망에 대한 자체 예측 수준을 사용하였다. 글로벌 지향은 현재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로, 외부협력은 현재 대기업, 대기업그룹 소속사,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등과의 현재 거래 여부와 향후 대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벤처기업의 특성 중 기업 규모는 자산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경영자의 재량권은 대표이사의 보유지분율로 측정하였다. 기업 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5단계로 나누어 기업이 주관적으로 측정한 기업의 성장단계와 기업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활용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N=2,912)

항목	빈도	비율(%)
업력	3년 이하	289 9.9
	4~10년	1273 43.7
	11~20년	884 30.4
	21년 이상	466 16.0
업종	에너지/화학/정밀	300 10.3
	의료/제약	213 7.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64 12.5
	통신기기/방송기기	204 7.0
	기계/자동차/금속	451 15.5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437 15.0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242 8.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32 8.0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312 10.7
	기타	157 5.4
기업성장 단계	창업기	207 7.1
	초기성장기	605 20.8
	고도성장기	1041 35.7
	성숙기	986 33.9
쇠퇴기	73 2.5	
제조/비제조업	제조업	2,093 71.9
	비제조업	819 28.1
CSR활동 유형	물질기부/기증	482 16.6
	재능기부	134 4.6
	ESG경영	414 14.2
	지역사회 봉사활동	136 4.7
	후원활동	187 6.4
	기타	12 0.4
실천하지 않음	1,547 53.1	

표본기업의 71.9%는 제조업으로 비제조업보다 약 2.5배 이상 많았으며, 업력은 4~10년 사이가 전체의 43.7%로 가장 많았다. 업력을 10년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10년 이하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 53.6%로 10년 이상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을 살펴보면 기계/자동차/금속 15.5%,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5.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하고 의료제약 7.3%, 통신기기/방송기기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이 스스로 평가한 기업의 성장단계는 가장 많은 기업인 35.7%가 제품 및 시장이 확대되고 매출이 급등하는 단계인 고도성장기로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33.9%의 기업이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성장이 안정되는 단계인 성숙기라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7.1%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응답했으며 기업활동이 정체되거나 철수가 고려되는 단계인 쇠퇴기는 73개 업체, 2.5%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본기업의 46.9%인 1,365개 기업이 CSR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천의 유형은 물질 기부 및 기증, ESG경영, 후원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재능기부의 순이었다. 표본으로 선정된 국내 벤처기업의 CSR 실천 유형을 보면 Carroll(1991)이 제시한 CSR 피라미드의 4가지 구성요소(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중 선한 기업시민이 되고자 하며, 인간의 복지(welfare)와 선의(goodwill)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능동적 활동인 자선적 책임에 속하는 실천이 많았다.

4.2. 분석결과

4.2.1. 상관관계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4>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4> 기초통계량 (N=2,912)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종속	CSR실천 (여1, 부0)	0	1	.47	.499
	ROA (순이익/총자산, %)	-7.75	1.78	-.0045	.334
	OP ROA (영업이익/총자산, %)	-8.66	3.51	-.0142	.363
	부채비율 (부채/자본, %)	-261.73	356.00	2.329	14.214
	정부지원수혜액(억원)	.00	350.8	3.87	12.509
	장기성장전망(1~5)	1.00	5.00	3.85	.714
	해외수출(여1, 부0)	0	1	.27	.444
	대기업사업(여1, 부0)	0	1	.46	.498
	대기업 협력기대(여1, 부0)	0	1	.27	.443
	자산총액(억원)	.05	5526.9	114.8	250.608
통제	대표지분율(%)	0.00	1.00	.619	.352
	성장단계 (창업기 1~쇠퇴기 5)	1	5	3.04	.964
	제조업여부(여1, 부0)	0	1	.72	.450

<표 5> 상관관계 분석 (N=2,912)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ROA (자산수익률)	r	1												
	p													
2. OP ROA (자산영업수익률)	r	.812**	1											
	p	0.000												
3. 부채비율	r	-.010	-.018	1										
	p	.595	.326											
4. 정부정책지원 수혜액	r	-.040*	-.077**	.006	1									
	p	.031	.000	.757										
5. 장기성장전망	r	-.014	-.038*	.010	.117**	1								
	p	.440	.038	.607	.000									
6. 해외사업	r	-.045*	-.050**	.012	-.082**	-.012	1							
	p	.016	.007	.508	.000	.521								
7. 대기업 협력기대	r	.041*	.063**	.020	-.141**	-.151**	.058**	1						
	p	.029	.001	.291	.000	.000	.002							
8. 대기업 거래	r	-.068**	-.082**	.007	-.050**	-.043*	.145**	.196**	1					
	p	.000	.000	.707	.007	.021	.000	.000						
9. 자산총액	r	.118**	.182**	-.031	-.047*	-.008	-.265**	.005	-.217**	1				
	p	.000	.000	.091	.011	.684	.000	.785	.000					
10. 대표자 지분율	r	.050**	.021	.002	.038*	.002	.094**	.031	.100**	-.247**	1			
	p	.007	.254	.902	.038	.900	.000	.092	.000	.000				
11. 성장단계	r	.110**	.127**	-.050**	-.112**	-.141**	-.093**	.119**	-.085**	.376**	-.067**	1		
	p	.000	.000	.00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 제조/비제조	r	-.088**	-.097**	-.031	-.019	.018	.190**	-.048**	.028	-.185**	-.012	-.093**	1	
	p	.000	.000	.092	.313	.324	.000	.010	.124	.000	.513	.000		
13. CSR실천	r	.034	.058**	.009	.087**	.100**	-.065**	-.111**	-.120**	.141**	-.123**	.043*	-.093**	1
	p	.068	.002	.6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1	.000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5 수준에서 유의 함을 의미

자산수익률(ROA)과 자산영업수익률(OP ROA)이 .81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다른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같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인 벤처기업의 CSR 실천은 기업의 여유자원 변수들인 자산수익률(ROA), 자산영업이익률(OP ROA), 부채비율, 정부정책지원 수혜액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성장전략 관련 변수들인 해외사업 수행, 대기업과의 사업수행,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 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가설검증 결과

벤처기업의 CSR실천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본연구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Hosmer & Lemeshow 검정 통계량은 카이제곱 통계량이 8.905, 유의수준 .350으로 유의수준의 값이 0.05보다 크다. 이는 추정된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독립변수의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추정된 모형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데 통계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5).

실증분석을 통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면, 벤처기업의 여유자원 중 활용가능(available) 여유자원인 자산영업이익률(Exp(B)=1.744, $p=.008$)과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인 정부 정책지원금(Exp(B)=1.025, $p=.00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영업이익률의 승산비(Odds Ratio)를 나타내는 Exp(B)가 1.744로 변수들 중에서 가장 컸으며 이는 자산영업이익률이 1단위 증가하면 벤처기업의 CSR활동 참여 가능성이 1.744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대비 순이익의 비율인 ROA는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냈으며 기업의 부채가 자산대비 많을수록 높아지는 부채비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중에서는 장기성장전망(Exp(B)=1.251, $p=.000$), 현재 대기업과의 거래여부(Exp(B)=1.301, $p=.001$) 및 향후 협력 기대 여부(Exp(B)=1.513,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사업 진행 여부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벤처기업의 특성 중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규모(Exp(B)=1.117, $p=.000$)는 양(+)의 회귀계수를, 대표자의 경영 의사결정 재량권을 의미하는 대표자 지분율(Exp(B)=.558, $p=.000$)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로 추가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는 초기성장기($p=.033$), 고도성장기($p=.029$), 쇠퇴기($p=.001$)가 CSR실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및 서비스

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단계인 창업기는 음(-)의 회귀계수를 가지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또한 벤처기업의 산업유형 중 제조업이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비제조업대비 CSR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벤처기업 CSR실천 결정요인 분석결과

변수	B	SE	유의수준	Exp(B)
총자산 영업이익률(OP ROA)	.556**	.209	.008	1.744
자산수익률(ROA)	-.276	.214	.196	.758
부채비율	.002	.003	.397	1.002
정부정책지원액(LN)	.024**	.006	.000	1.025
장기성장전망	.224**	.057	.000	1.251
해외사업	-.027	.092	.772	.974
대기업 거래	.263**	.082	.001	1.301
대기업 협력 기대	.414**	.091	.000	1.513
자산총액(LN)	.111**	.032	.000	1.117
대표자 지분율	-.583**	.114	.000	.558
성장단계(기준:쇠퇴기)			.001	
- 창업기	-.054	.309	.860	.947
- 초기성장기	.594*	.279	.033	1.811
- 고도성장기	.593*	.272	.029	1.810
- 성숙기	.527	.271	.052	1.694
제조업여부	.361**	.089	.000	1.435
모형의 카이제곱(자유도) 217.524(15), 유의확률 .000				
Hosmer & Lemeshow 검정의 카이제곱(자유도) 8.905(8), 유의확률 .350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5 수준에서 유의 함을 의미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인 여유자원(slack resource),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그리고 벤처기업의 특성 관점에서 국내 벤처기업들의 CSR활동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 비교하여 벤처기업의 CSR 활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벤처기업의 CSR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CSR의 발전적 확대 방안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의 검증 결과는 <표7>과 같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2) 관측치가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오즈(Odds)간의 비율

<표 7> 연구가설의 검증결과 정리

가설	CSR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1 벤처기업의 활용가능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활용가능 여유자원 중 총자산 영업이익률(OP-ROA)이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벤처기업의 잠재적 여유자원이 많을수록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잠재적 여유자원 중 정부 정책지원금이 긍정적 영향을 미침.
3 벤처기업의 수출 등 글로벌 사업 수행은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사업 진행 여부는 음(-)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4 벤처기업의 대기업과의 사업 진행과 향후 사업에 대한 기대는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기업과의 거래와 향후 협력 기대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5 벤처기업의 장기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적 장기성장전망은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6 벤처기업의 대표자 보유지분율은 CSR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표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침.
7 벤처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자산규모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5.1. 여유자원과 CSR

본 연구에서 벤처기업의 활용가능 및 잠재적 여유자원이 CSR 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의 우수한 재무적 성과에서 창출되는 여유자원이 CSR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정용기, 2012; 이걸주 외, 2017; 최준혁 외, 2017; Surroca et al., 2010; Waddock & Graves, 1997)과 같은 분석 결과이다.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 경험, 조직 역량 등 유무형의 자원이 부족함을 극복하면서 생존과 성장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에게 위험의 회피나 새로운 기회 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유자원을 확보 하는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CSR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 실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하다면 벤처기업에게는 CSR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일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보유한 여유자원의 보유수준이 전략적 선택에 매우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지원금을 잠재적(potential) 여유자원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Chen et al.(2023)의 선행연구와 같이 정부의 정책지원금이 국내 벤처기업의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 프로세스의 미숙과 외부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에 따른 신생의 어려움(liability of newness)을 극복해야 하는 벤처기업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여유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CSR 실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정부의 융자 및 보증과 사업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정책지원금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포

함한 중소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CSR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CSR 활동이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이채규·양동규a, 2018; 천동필·우청원, 2020; 김나미·김영미, 2023; 이에림·박중서, 2023)와 기업의 실무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벤처기업들의 CSR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과 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벤처기업 대상 사업화 또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리 CSR관련 지원사업은 성과 창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5.2. 성장전략과 CSR

벤처기업의 성장전략 중 대기업과의 현재 거래 여부 및 향후 협력 기대는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대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현재 대기업과의 사업관계’ 두 변수의 벤처기업의 CSR 실천 확률을 의미하는 Exp(B)는 각각 1.513과 1.301로 독립변수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크다.

실제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포함한 외부협력을 통해 자원들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정보 관련 접근성을 높이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가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향덕·이철규, 2018). 대기업 공급망에 참여하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CSR은 필수적이며 관계 유지를 위해 강제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사업요소이다. 또한 CSR은 향후 대기업 공급망 참여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등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기회로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전략적 요소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기업은 공급망에 참여하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이자 개방형 혁신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생차원의 CSR 지원과 협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빠질 수 없는 것이 혁신과 글로벌 지향이며(김수옥, 2010; 이기은·윤병운, 2012) 본 연구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도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은 CSR 실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 벤처기업들의 해외사업 수행은 CSR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차이는 분석 대상 기업의 유형과 해외사업 참여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수출을 하고 있는 상장기업(최아름·구지현, 2016)과 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김나미·김영미, 2023)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다른 중소기업들의 42%가 수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 벤처기업의 26.9%보다 높다. 향후 벤처기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해외사업과 CSR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장기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CSR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R 활동의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 창출이라는 기대효과가 단기간 내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CSR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CSR 활동에 대해 벤처기업의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Wang & Bansal(2012)과 Wang(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성장전략으로서 CSR을 실천하는 벤처기업에게 장기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 벤처기업 특성과 CSR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특성 중 자산규모의 크기는 CSR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대표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규모가 CSR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기업 규모와 CSR 활동 수준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장지인, 2011; 정용기, 2012; 오덕교 외, 2013; 박혜진 외, 2022). 본 연구에서 활용한 표본 벤처기업의 총자산 평균은 114.8억원이었지만 표준편차가 250.61로 기업별 규모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 접근성과도 연관이 있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많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계되고 기업의 제품, 구성원,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규모가 큰 벤처기업은 작은 기업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CSR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배주주지분율과 CSR 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 중 긍정적 관계를 제시한 연구들(김창수, 2009; 고성천·박래수, 2011)은 대주주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CSR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부정적 관계를 제시한 연구들(육근호·최미화, 2011; 정용기, 2012)은 우리나라 지배주주들의 CSR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들의 CSR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소유와 경영의 일치가 기업의 CSR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Barnea & Rubin, 2010; Harjoto & Jo, 2021; Oh et al., 2011).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나타난 벤처기업 대표자의 지분율과 CSR 활동의 음(-)의 관계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기업의 CSR 성과가 낮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벤처기업이 갖는 신생의 어려움이나 여유자원의 한계

등으로 경영자가 CSR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성과가 경영자 자신의 보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과가 불확실한 CSR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의 특성에 따른 CSR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연구도 필요하다.

5.4.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기업의 여유자원, 성장전략, 기업특성의 측면에서 도출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2023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패널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원과 대기업과의 외부협력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의 시차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CSR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횡적연구로 한정된 분석이 수행되었다.

둘째, 2023년 조사자료만 적용한 연구로서 2020년 시작된 Covid-19 팬데믹의 발생 이전과 이후, 2023년 Covid-19 공식적인 종료인 엔데믹 선언시점까지 발생한 벤처생태계를 포함한 산업의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평가에 반영하고 기업은 이를 경영의 중요 요소로 실행하고 있는 ESG의 영향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향후 다년간의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벤처기업의 CSR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여유자원, 성장전략, 기업특성이 CSR 실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기업의 자선적 활동, 공유가치 창출, ESG경영과 같은 CSR 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까지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정부 지원방안 마련이라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CSR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려는 연구 가설 및 모형에 적합한 변수측정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의 CSR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의 전략적 지향성, 기업 내부적인 인적역량, 고객과 지역 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구성과 영향력, 산업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벤처기업의 CSR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인과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고 폭넓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

- 고성천·박래수(2011).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결정요인과 기업가치. *세무와 회계저널*, 12(2), 105-134.
- 곽배성·이재혁(2019). 국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연구 동향 분석 및 향후 연구 방향 제언. *전략경영연구*, 22(3), 21-50.
- 김나미·김동수·이종선(2021).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사회적 책임 활동 다양성과 성과. *전략경영연구*, 24(1), 83-103.
- 김나미·김영미(2023). 중소기업의 수출이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압력과 성장단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37(2), 69-101.
- 김선화·이계원(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관련 연구들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연구방향. *대한경영학회지*, 26(9), 2397-2425.
- 김수옥(2010).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공요인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3(1), 87-114.
- 김신영·손성민·조부연(2024). 기업의 잉여자원(Slack)이 연구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매개로. *한국생산관리학회지*, 35(1), 59-75.
- 김은혜·김장훈(2020). 내부역량 및 외부자원 활용이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원준거이론(RBV)의 확장. *전략경영연구*, 23(1), 1-23.
- 김익성(2006). 한국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CSR평가체계: 경영관리체계 내 통합과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경상논총*, 24(3), 113-141.
- 김종운(2016). 한국의 벤처기업은 태생적 글로벌기업인가: 벤처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11(3), 37-48.
- 김창수(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 *한국증권학회지*, 38(4), 507-545.
- 김향덕·이철규(2018). 벤처기업의 외부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40(3), 77-96.
- 나도성·임옥빈·강용수(2011). 국내 중소기업CSR 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B2B, B2C 중소기업의 차이분석을 중심. *디지털융복합연구*, 9(6), 325-341.
- 나영·홍석훈(2011). 기업규모에 따른 CSR 활동과 기업가치에 대한 실증분석. *회계저널*, 20(5), 125-160.
- 나진성(2022). ESG 경영시대의 공급망 관리 분야 과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7(5), 145-156.
- 박다인·박찬희(201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업경쟁력 및 기업 성과 창출 전략. *벤처창업연구*, 13(6), 177-189.
- 박혜진·이지운·왕박한(2022). 국내 기업의 ESG 위원회 도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2(3), 13-24.
- 서주환(2016). 기업이 정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경영 성과 관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4), 426-433.
- 신중경·하규수(2013). 창업실패 요인 분류 및 실패 패턴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1(5), 257-265.
- 신진교·조정일(2011).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CSR)이 경영활동과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33(1), 103-119.
- 신호창·신기하·김경이(2022). 대기업 동반성장 CSR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구성원 열의와 기업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포스코를 중심으로. *PR 연구*, 26(2), 69-115.
- 오덕교·이기훈·신범철·이의영(2013). 중소, 중견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의 도입 및 실행에 대한 실증분석. *생산성논총(구 생산성연구)*, 27(1), 385-418.
- 오지영·정성광(2023). 기업의 업종 및 소재지에 따른 ESG 이행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3(4), 153-164.
- 오한모·안상봉(2019).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ultinational Service Ventures' Social Responsibility Engagement with Local Allies: A Focus on Propositional Development. *아태비즈니스연구*, 10(1), 135-147.
- 육근효·최미화(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유구조, 재무성과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53(1), 303-331.
- 윤상용·이형탁(2018).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1(1), 61-81.
- 이걸주·이호갑·오덕교(2017). 기업가치가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22(6), 53-76.
- 이기은·윤병운(2012). Analysis of Success Factors for Innovation of Global Leading SMEs. *기술혁신학회지*, 15(1), 76-104.
- 이민화·최선(2015). 1차 벤처붐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 *중소기업연구*, 37(4), 147-179.
- 이예림·박종서(2023). 벤처기업의 CSR과 국제화에 대한 연구: 국제통상 환경하의 국제화 촉진요인과 애로요인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4(4), 213-233.
- 이은지·조영주(2022).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CSR 연구동향. *서비스경영학회지*, 23(5), 32-52.
- 이인성·강인원(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직몰입,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235-248.
- 이재규·양동우(2018a). 중소벤처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조직문화유형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1(34), 77-92.
- 이재규·양동우(2018b).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전략유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조직문화유형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1(6), 1187-1211.
- 이훈우(2005).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4(2), 315-348.
- 이학식·임지훈(2015). *SPSS22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장성희·마운주(2014). 장기지향성이 CSR 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5), 2703-2712.
- 장지인(2011).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CSR) 경영의 현황과 발전과제.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2011, 55-86.
- 장지인·최현섭(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재무성과와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3(2), 633-648.
- 정용기(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성과요인과 지속성장성 예측. *대한경영학회지*, 25(4), 2065-2089.
- 정진섭·우시진(2021). 4차 산업혁명과 ESG 경영: 유통산업의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1(3), 351-366.
- 조금제(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기업 CSR의 활성화 방안. *벤처혁신연구*, 1(1), 67-82.
- 중소벤처기업부(2023a). *22년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Retrieved from <https://mss.go.kr>
- 중소벤처기업부(2023b). *202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벤처기업부, Retrieved from <https://mdis.kostat.go.kr>
- 천동필·우정원(2020). CSR 활동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벤처창업연구*, 15(1), 225-235.
- 최아름·구지현(2016). 기업의 국제화와 경영성과: 사회적 책임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 Analysis Society*, 18(2), 839-850.
- 최준혁·양동훈·배홍기(2017). CSR 은 기업의 여유자원의 결과인가?: 기업수명주기를 통한 분석. *회계정보연구*, 35(3), 333-364.
- 최희원·문철우(2012). CEO 특성이 CSR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인사조직연구*, 20(4), 103-136.
- 황호찬(2007).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기업규모 및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9(2), 229-244.
- Attig, N., Boubakri, N., El Ghouli, S., & Guedhami, O.(2016). Firm internationalization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4, 171-197.
- Barnea, A., & Rubin, A.(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7, 71-86.
- Bode, C., & Singh, J.(2018). Taking a hit to save the world? Employee participation in a corporate social initia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9(4), 1003-1030.
- Bourgeois, III, L. J.(1981). On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slac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6(1), 29-39.
- Bourgeois, L., & Singh V.(1983). Organizational slack and political behavior within top management teams. *Acad Manage*; 43-7.
- Brush, C. G., & Vanderwerf, P. A.(1992). A comparison of methods and sources for obtaining estimates of new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2), 157-170.
- Carlisle, Y. M., & Faulkner, D. O.(200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stages framework. *European Business Journal*, 16(4), 143-151.
- Carroll, A. B.(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39-48.
- Carroll, A. B.(19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olution of a definitional construct. *Business & society*, 38(3), 268-295.
- Chen, K., Liu, X., Li, Y., & Linderman, K.(2023). Government support and cross-border innovation: The effect of China's innovative city policy on Chinese firms' patenting in the United States.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32(6), 1793-1811.
- Daniel, F., Lohrke, F. T., Fornaciari, C. J., & Turner Jr, R. A.(2004). Slack resources and firm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6), 565-574.
- Dimick, D. E., & Murray, V. V.(1978). Correlates of substantive policy decisions in organizations: The cas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1(4), 611-623.
- George, G.(2005). Slack resources and the performance of privately held firm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4), 661-676.
- Harjoto, M. A., & Jo, H.(2011). Corporate governance and CSR nexu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0, 45-67.
- Hemmert, M., Cross, A. R., Cheng, Y., Kim, J. J., Kotosaka, M., Waldenberger, F., & Zheng, L. J.(2022). New venture entrepreneurship and context in East Asi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sian Business & Management*, 21(5), 831-865.
- Mazzarol, T., & Reboud, S(2020). Innovation in Small Firm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131-164
- Oh, W. Y., Chang, Y. K., & Martynov, A.(2011).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4, 283-297.
- Rajeev, A., Pati, R. K., Padhi, S. S., & Govindan, K. (2017). Evolution of sustainability in supply chai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62, 299-314.
- Shepherd, D. A., Souitaris, V., & Gruber, M.(2021). Creating new venture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47(1), 11-42.
- Stinchcombe, A.(1965). Organization-creating organizations. *Trans-action*, 2(2), 34-35.
- Surroca, J., Tribo, J. A., & Waddock, S.(2010).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role of intangible resourc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1(5), 463-490.
- Waddock, S. A., & Graves, S. B.(1997).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financial performance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4), 303-319.
- Wang, T.(2017). Long-term orientation, marketing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new ventures. In THE WORLD SCIENTIFIC REFERENCE ON ENTREPRENEURSHIP: Volume 3: *Sustainability, Ethics, and Entrepreneurship* (pp. 249-273).
- Wang, T., & Bansal, P.(2012). Social responsibility in new ventures: profiting from a long-term orient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10), 1135-1153.
- Zuo, Y., Jiang, S., & Wei, J.(2022). Ca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itigate the liability of newness? Evidence from China. *Small Business Economics*, 1-20.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of Venture Firm's CSR: Focusing on Slack Resources and Growth Strategy*

Jang, Dong-Hyun**

Yeon, Ju-Han***

Kim, Chun-Kyu****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deriv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racti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of venture firm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lack Resource Theory and the company's growth strategy,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future expansion of venture firm's CSR activities. In Korea, venture firms have grown into important players in the national economy since the late 1990s through social contributions such as economic value creation, job cre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s venture companies grow in status, positive relationships with stakeholders and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values are required.

Now, CSR is becoming an important strategic choice for SMEs and venture firms. However, until now, CSR-related academic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large or listed corporations, and there is not much research on SMEs or venture firms. In particular, research on the factors that lead venture companies to make important business decisions of participating in CSR activities is not there yet. This study applied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23 Survey on Venture Firm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s a result of this study, operating profit, which is an available resources of venture companies, and government support, which is a potential resource, have a positive impact on venture firms's CSR activities. Also, business relationships with large corporations and expectation for future cooperation also have a positive impact on CSR activities as the determinants.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in venture firms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separated, the higher the CEO's shareholding ratio, the more negatively it affects CSR activities. This study contributes academically as the first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SR activities of venture firms in Korea and provides implications that government policy support and collaboration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venture firms are important in order to expand CSR activities of venture firms.

KeyWords: Venture Fir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lack Resource, Growth Strategy, Influencing facto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Ph D. Candida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Technology Convergence, donghyun.jang1@gmail.com

*** Co-Author,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Technology Convergence, juhanyeon@cn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Technology Convergence, chunkyuk@cnu.ac.kr